

제 목 : 바다그네 Swinging buoy

작 가 : 손몽주

날 짜 : 2021.9.17(금) - 10.3(일)

문 의 :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Tel. 051-747-930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번길 154

해양문화가 가지는 지역적 개성과 예술적 섬세한 감성이 드러나는 손몽주 작가의 개인전 [바다그네 Swinging buoy] 展이 9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전시는 '떠있는 것들',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유희를 그네에 비유하여 설치, 조각, 판화 작업으로 선보인다. 작가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바다의 복합적인 풍경을 바다 그네에 은유하였다. 바다 풍경 위에서의 부표나 해양 관계 물체들은 자연물과 대조적으로 주목될 수 있다. 바다 위를 맴도는 특유의 사물들과 조각적 조형성을 응용, 결합시켜 '바다 그네'라는 자연과 균형, 운동성을 직접적인 입체작품 소재로 활용하였다. 구조물에 흰색 풍선으로 덮은 이 설치작품은 그네가 설치되어 있어 관람자로 하여금 탈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네는 딱히 어느 방향이 앞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별다른 의식 없이 의자에 앉아 그네를 타다 보면 마치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듯 작품에 스며든다. 7m 천고에 부착된 '떠다니는 조각들' 작업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것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수집하여 마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 떠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작가는 처음으로 조각의 일부를 좀 더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지판화와 칠콜레 기법으로 원하는 한지의 색과 종이를 이용하여 판화 작업을 하였다.

'둥둥 떠 있는 표류로 향한 길은 결국 의지와 힘을 뺀 채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몸을 그저 맡겨버리는 타협 아닌 타협으로 반복적인 당김과 밀림의 연속 속에 부유된다'(작가노트 중). 작가는 무의식적으로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지를 갖고 흐름에 몸을 내던지는 그런 주체성이 암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년시절 바다에서 자라 성장해온 작가는 고요한 바다에 튜브에 몸을 맡겨 둥둥 떠다니며 바다의 이끌림에 함께 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미 작가의 바다 그네 작업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바다그네-둥둥둥- / 비계파이프, 대형풍선, 표류목, 어구 / 700x500x600cm / 2021
Swinging buoy / Driftwood, Mixed media



떠 다니는 조각들, 400x400cm 이내 설치, 혼합재료,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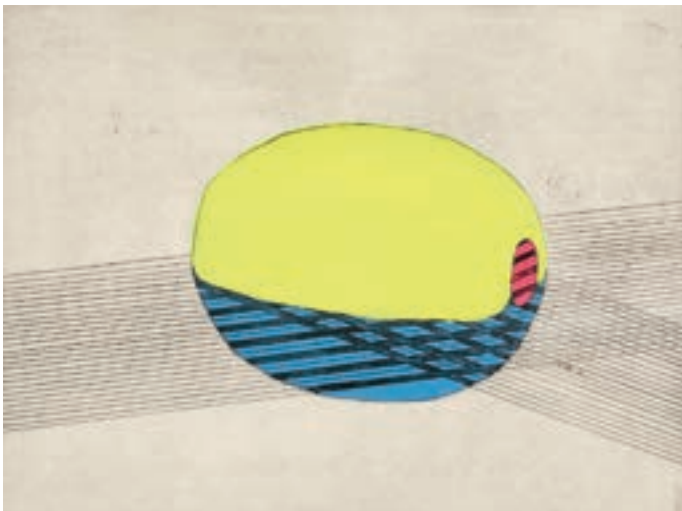
Swinging bouy 1 모빌, 50x50x80cm, 스텐리스, 2021

손몽주 작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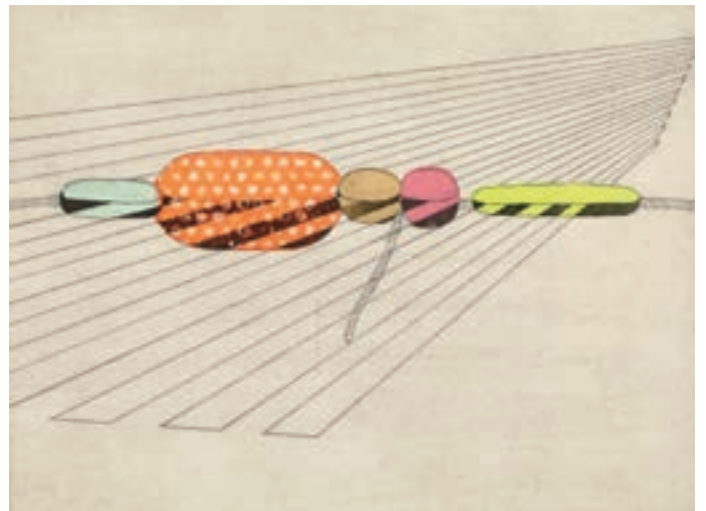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상으로 느껴지는 이미지와 감정을 어떻게 구현해 보는가...
 둥둥둥... 뭔가 떠 있는 느낌의.. 둥둥둥... 공중에 떠 있거나, 물에 떠 있거나, 아니면 꼭 물리적인 몸이나 물체가 아니라,
 마음이 붕~ 뜨는것도 "둥둥둥" ...

최근 나는 세상에 내가 그저 떠 있음을 실감합니다. 내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으니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의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한 발짝의 움직임도 때론 어려운 것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리저리 밀리고, 왔다갔다하며 나의 시간에 떠 있는 동안 치열한 저항과 순응은 무한 교차됩니다. 망망대해가 무섭기도
 하고 그 틈에서 나름의 미소를 찾기도 하는 차갑고도 꽤 뜨거운 부유의 시간을 둥둥~ 떠가는 것에 비유해 봅니다. 그네에
 걸터앉아 잡힐 듯 말 듯 한 눈 앞의 장면을 그저 봅니다.



swinging buoy, Chincolle, 50x40cm, 2021



swinging buoy, Chincolle, 50x40cm, 2021

손몽주 Son, Mongjoo 1978-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졸업

Master of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in London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석사 조소전공 졸업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Solo exhibitions

2020 '플로팅 플라워' 유진화랑 기획전, 부산

2019 '영도스윙' 복합문화공간 끄티, 부산

2018 'Optical Tension' 문화공간답습, 부산

2017 '안전지대' 부산교육대학교 박물관 기획전, 한새뮤지움, 부산

2016 '당신의 파빌리온' 한국예탁결제원 기획전, 여의도사옥, 서울

2015 '송도엔카운터' 미부아트센터 기획전, 미부아트센터, 부산

2015 '사하플라타너스' 홍티아트센터 멘토멘티전,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4 '표-류-로' 홍티아트센터 기획전, 홍티아트센터, 부산

2013 'Expanding Space' 움갤러리 E space 기획전, 부산

2012 'No signal'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기획전, 롯데갤러리

2009 'Departure' 청년작가 기획전 공모 당선전, 한솔갤러리

2007 'Come in' 대안공간 반디 기획전 공모 당선전, 부산

2003 'Extending Space 1,2' 석사학위청구전, 부산대학교미술관

Group exhibitions

2020 '놀이가 미술이 될때' 광주시립미술관 기획전, 광주

2018 '포스트88' 소마미술관, 서울

2018 '강정현대예술제' 대구 강정보 야외일대

2018 '오버래핑' 테라로사 박물관 기획전, 강릉

2017 '더블이펙트' 아트프로젝트팀 프리즘 기획전, 메르씨엘비스, 부산

2016 '웨이브 그루브' 2인전, 용두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6 '비밀상의 발견' 전주문화재단 기획전, 팔복예술공장, 전주

2016 '지쿠고 풍경 저 너머에' 큐슈 게이분칸 전시실, 지쿠고시 큐슈, 일본

2016 '상상공간' 고양문화재단 기획전, 고양아람누리 미술관, 경기도

2015 '파일럿' 제주문화재단 기획전, 옛 제주대학교 부속병원

2015 '송고의마조히즘' Moa미술관 기획전,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2015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기획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

2015 '국회아트페스티벌' 환경연합회 기획전, 국회의사당 야외조각전, 서울

2014 '아트환타지아' 쓰시마 토수이칸 갤러리, 일본

2014 '싱가폴뱅크아트페어' 팬퍼시픽호텔, 싱가포르

2014 '도시의 빛' 서울시민청 기획전, 시티갤러리, 서울

Biennale

2020 창원조각비엔날레 본전시, 성산아트홀, 창원

2018 '2018 광주비엔날레'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 옛 청주연초제조창, 청주

2008 '2008부산 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미월드, 부산

Award

2017 부산대학교 학술상, 부산대학교

2013 한국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글로벌 Ph.d

로십 문화융복합부문 수여

2013 부산국제바다미술제 특선 수상

2013 부산문화재단 청년작가 지원

2012 봉생문화재단 봉생청년문화상 전시부문 수상

2011 함부르크 부산 국제교류 공모당선

2009 부산시민회관 청년작가 기획전모전 최우수작가 당선

2007 대안공간 반디추최 신진작가 기획전모 최종 당선

Residency

2015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1,2기 입주작가

2011 아트팩토리 인 대대포 입주작가

2010 아르코 Time & Space 노마딕 아트 레지던시,

몽골 달란자가드미술관/ 고비사막

2010 아르코 Time & Space 노마딕 아트 레지던시, 제주현대미술관

2009 오픈스페이스 배 국제레지던시 3개월